

감탄사를 수반한 독일인 신체언어 읽기

김영순(조선대)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인의 신체언어 Körpersprache를 용이하게 습득하기 위해 기호학에 입각한 신체언어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감탄사 Interjektion를 수반한 신체언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다. 신체언어는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말을 동반하여 의미를 보강하거나 약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반론까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말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부분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기도 한다. 신체언어 표현이 일상언어 표현과 분리될 수 없는 의사소통적 상관성(임지룡·김영순 2000)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내에서의 DaF-수업은 신체언어 능력 중심 교수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적 교수법에서는 문화 이해 능력의 차원에서 인간의 신체언어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DaF-수업에 있어서 언어의 기능 영역(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과 문법 영역에만 치중해왔지 문화 영역에 관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습득은 그 언어의 문화습득까지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기에 한국인 DaF-학습자가 독일에서의 생존을 위해 문화적 능력 습득은 필수적이다. 이 문화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언어 능력이다. 신체언어 능력은 한 사회의 동작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 동작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동작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동작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 등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인의 신체언어 가운데 주로 감탄사를 동반한 신체언어들을 다룬다.¹⁾ 사실상 독일인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감탄사는 말 Sprache

1) 이 연구는 2000년 5월 19-20일에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던 독일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신체언어기호를 통한 독일어 감탄사 습득"과 2000년 6월 22-24일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2회 한국독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뿐이 아닌 동작 Geste과 병행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하에서 발화되는 감탄사들을 문법적으로 체계 있게 기술하기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감탄사에 관한 교수법적 연구는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왔다.²⁾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독일인의 신체언어와 그 의미, 그리고 함께 수반되는 적절한 감탄사를 제시함으로써 독일인의 문화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적 표현들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문화 학습적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는 들머리와 맺음말을 포함하여 5절로 이루어져 있다. 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신체언어 연구와 기호학의 관련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며 3절에서는 한국인 손동작 중 '전화통화에 관련한 손동작'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신체언어 교수법 및 교재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4절에서는 독일인 손동작의 주요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2. 신체언어와 기호학

이 절에서는 신체언어의 기호학적 의의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대 인간 의사소통의 기초 수단은 세 가지 유형, 즉 음성-언어적 방법, 음성-비언어적 방법, 비음성-비언어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첫 번째 수단을 순수 언어적 수단으로, 두 번째를 유사언어 Parasprache적 수단으로, 세 번째를 순수 동작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신체언어가 가담할 수 있는 영역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수단이다. 그렇다면 신체언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의미하는 신체언어란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 인간 신체의 움직임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언어들은 사회적 상황 및 주변 맥락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소통

“독일인 신체언어의 통합기호학적 분석”을 종합하고 수정 보완한 것임. 부족한 연구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 독일어 감탄사의 문법적 기술을 위한 일반적인 논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의성 Mimiklaut적으로 발화되는 감탄사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음성학적 혹은 표기법적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의사소통과 연결된 화용론적 논의도 있었다.

시킨다. 인간의 몸을 기호학에서는 의미작용 Signifikation의 대상이며 의사소통의 주요 근원으로 보고 있다. 신체적 기호 작용 Semiosis과 그 표상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비구두 의사소통 기호학의 한 분과를 이룬다. 성광수·김성도·김영순(1999)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70%이상을 신체를 통해서 소통시킨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없는 표현들이 아무렇게나 발산되는 행동 또는 구두 담화에 첨가되는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같은 표현들은 언어적 의미와 상보적으로 동시에 그 것들과는 독립하여 의미를 소통시키며 나름대로 비구두적 코드들의 구조적 속성들을 준수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호작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신체언어적 표현은 신체 경로 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신체 경로 망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실현하는가, 최소한 두 인간 개체간의 코드역기 Enkodierung와 코드풀기 Dekodierung, 즉 메시지 내지는 신호의 교환에 의존하여 우리가 개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영순(1999)에서는 신체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호 감성적 지각과 이성적 지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도의 인지적 능력으로 무장된 사회화된 조직체로서 인간 신체간의 대립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신체언어 연구에 있어서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호학적으로 보자면 언어 요소와 신체언어 요소간에는 의미와 표현 면을 지닌 기호체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언어 문화권에 따라 관습적인 신체언어의 형태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체언어간의 상관성을 규정하게 된다. 문화와 관련해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신체언어는 사회적 코드 Kode에 들 수 있다. 이 코드는 같은 문화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사회적 코드로서 신체 언어는 논리적 코드와는 달리 맥락에 따라 해석의 다양성을 갖는다. 사회적 코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지위나 특성을 노출시키는 코드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신체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적 코드이다. 즉 신체 언어는 표시적 코드에 해당된다.

Corraze(1980)와 Nöth(1990)에서는 신체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비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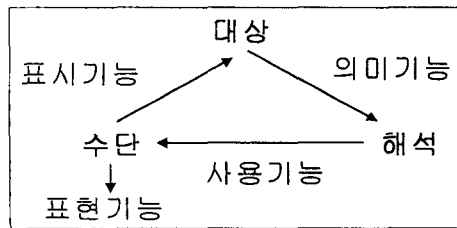
적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말 혹은 문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모든 수단들을 흔히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손짓, 팔짓, 머리 움직임, 몸짓, 태도, 신체 운동, 얼굴 표정들이 속한다. 이 들 모두 넓은 의미의 동작에 속하나 우리는 흔히 손짓, 팔짓, 머리 움직임만을 좁은 의미의 동작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언어적 수단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Nöth 1990: 392f. 참조):

- (1) 가. 표상 부호(emojins)
- 나. 삽화 기호(illustrators)
- 다. 규제 기호(regulators)
- 라. 감정 표현(affect displays)
- 마. 신체 조정 기호(body manipulators)

Ekman & Friesen(1972)에 의해 제안된 표상 부호 (1가)는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비언어 기호들의 전형이다. 이 표상 부호는 주로 소음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대화가 불가능할 때나 침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관습적이며 언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의도된 기호라서 바로 직접 언어적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말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용은 사회층, 세대, 성, 지역 및 문화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삽화 기호 (1나)는 언술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동작이라서 언술시 전달하는 내용을 보강·보충하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³⁾ 규제 기호 (1다)는 대화를 유지 조절하는 데 쓰이는 기호이다. 다시 말해 화자와 청자간의 언어적 상관성을 규정하는 언술에 관계되는 동작으로서, 예를 들어 여기에는 화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시로 청자가 머리를 위 아래로 끄덕거리는 행위 등이 속한다. 얼굴 표정과 같은 것은 (1라)의 감정 표현에 속한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주로 심리적 현상들인 두려움, 놀라움, 노여움, 슬픔, 즐거움, 걱정 근심 등을 나타낸다. 신체 조정 기호 (1마)는 물건이나 자기 신체

3) 삽화 기호에 관한 자세한 하위 분류는 권종분(1998나: 116) 참조.

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동인데, 예를 들어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으로 심리적 감정 상태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1라)의 감정 표현과 (1마)의 신체 조정 기호는 언어 체계와는 거리가 먼 비언어 기호들이다. 김영순(1999가, 나)에서는 Morris의 세 가지 기호학적 차원을 언어학의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과 관련시켜 각각 기호 통사론, 기호 의미론, 기호 화용론적 연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동작과 연결시킨다면 체계적 분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먼저 기호 통사론, 기호 의미론, 기호 화용론의 연구 영역을 살펴보기로 하자.



[도식 1] 기호학적 기능영역

[도식 1]에서의 '수단'은 Peirce의 개념에서는 기호체와 같다. 결국 여기에는 기호의 삼각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Morris(1977)의 경우에서 표현 기능은 통사론적 영역, 표시 기능은 의미론적 영역, 의미 기능은 화용론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수단과 해석 사이의 사용 기능은 어느 영역에서 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작 분석시 이 사용 기능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김영순(1999가, 나)에서는 특정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영역이 사슬처럼 얽힌 영역간 연계설을 주장한다.

- (2) 가. 기호 통사론: (수단 → 대상), 표현 기능, 표시 기능에 관한 연구
- 나. 기호 의미론: (수단 → 대상 → 해석),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 다. 기호 화용론: (대상 → 해석 → 수단), 사용 기능에 관한 연구

만약 침묵을 요구하는 라는 의미로 검지를 입술 위에 수직으로 놓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신체언어 수행자에 의해 생산되는 이 손동작 “검지를 입술 위에 수직으로 놓는” 것은 바로 기호 통사론적 대상이며, 이 동작에 담겨 있는 의미 “조용히 함” 혹은 “침묵”은 기호 의미론적 대상이 된다. 또한 이 기호를 수용하는 측에서의 인지 상태 등은 기호 화용론적 대상이다. 다시 말해 동작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호 통사적 기술 대상으로서 특정 동작에 대한 표현 변형 expression variants, 기호 의미적 기술 대상으로서의 의미 변형 meaning variants, 기호 통사·의미적 기술 대상으로서 표현 변이형과 의미 변이형의 관계, 기호 화용적 기술 대상으로서의 동작 수용의 인지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호학인 세 가지 차원의 접근에 대해 김영순(1999-2000)의 연구에서는 소위 통합기호학 integralsemiotic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독일인의 대표적인 전화통화와 관련된 신체언어인 “Telefon handhaben”에 대해 통합기호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 “Telefon handhaben”의 통합기호학적 분석

3.1. 기호통사 및 의미적 기술

이 연구는 위에 논의된 동작 중심의 기호학적 개념을 가지고 독일인의 신체언어 손동작인 “Telefon handhaben”를 분석하게 된다. 기호통사적 층위에서는 기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언어의 표현 내용을 기술하고, 기호의미적 층위에서는 기호 의미라 할 수 있는 신체 언어의 의미 내용을 기술하게 된다. 먼저 독일인의 동작 “Telefon handhaben”의 표현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다.

- (3) 가. 주먹을 귀 옆에 갖다 댄다(Die Faust neben das Ohr halten).
- 나. 엄지는 귀 옆에, 새끼손가락은 입 옆에 댄다(Daumen neben das Ohr und Kleinfinger neben den Mund halten)
- 다. 몸 앞에서 검지로써 원을 돌린다(Mit dem Zeigefinger vor dem

Körper frontal kreisen)

(3가-다)에서와 같이 “Telefone handhaben”은 세 가지 통사적 기술 변향을 갖게 된다. 이 들 세 가지 가능한 표현 변향은 다음과 같은 의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 (4) 가. 전화함을 주제로 삼을 때(Telefonieren thematisieren)
- 나. 전화통화를 약속할 때(Einen Telefonanruf versprechen)
- 다. 전화통화를 요구할 때(Zu einem Telefonanruf auffordern)
- 라. 전화 음을 알릴 때(den Eingang eines Anrufs anzeigen)

이러한 의미적 변향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적 일상표현과 관계 있는가를 살펴보자. 각 예시의 ‘가’는 담화의도 Diskursintention 유형을 나타내며, ‘나’는 일상 구어적 표현을, ‘다’는 감탄사 사용 여부를 나타낸다.

- (5) 전화 함을 주제로 삼을 때
- 가. 주제화함(THEMATISIEREN)
- 나. “Hast Du mich gestern telefoniert?” oder
 “Wo kann ich telefonieren?”
- 다. -----

- (6) 전화통화를 약속할 때
- 가. 약속함(VERSPRECHEN)
- 나. “Ich ruf dich an!”
- 다. -----

- (7) 전화통화를 요구할 때
- 가. 요구함(AUFFORDERN)
- 나. “Ruf mich an!”
- 다. -----

- (8) 통화의 시작을 나타낼 때
 가. 나타냄(ANZEIGEN)
 나. “Telefon für dich!”
 다. “Klingeling!”

이러한 기호통사 및 기호의미적 기술은 기호 사용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화용적 기술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시 (6), (7), (8)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8다)의 감탄사 “Klingeling”의 등장이다. 모든 독일인의 신체언어가 감탄사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담화상황과 의미를 고려하여 감탄사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예는 학습에 의하지 않고서는 습득할 수 없다. 다음절에서는 기호로 간주되는 신체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기호의 화용적 영역에 대한 기술이 제시된다.

3.2. 기호화용적 기술

독일인의 동작 “Telefon handhaben”의 기호화용적 분석을 위해서 베를린공대 기호학 연구소에서 수집한 베를린 거주 동독인, 서독인, 동양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작인지도 설문 조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⁴⁾ 생산된 동작이 어떻게 인지되는가 하는 점은 그 동작의 사용 영역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Telefon handhaben”의 동작인지도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사적 변항과 의미적 변항의 상관 관계에 적용시켜 어떤 통사적 변항이 어떤 의미적 변항과 최적으로 연결되는 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동작의 사용 영역을 관찰 할 것이다.

4) 여기서 제시하는 동작인지도 측정 결과는 베를린 공대 기호학 연구소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에서 작성한 설문서를 가지고 동독 출신, 서독 출신 그리고 주로 동양계 외국인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실제 결과는 남녀별, 연령층별, 교육 수준별, 종교별로 자세히 수집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출신 대상별과 그에 따른 인지도만을 제시할 것이다.

구 분	서독인	동독인	외국인	인지도
전화함 주제화	48	44	67	49 %
전화함 약속	18	19	1	17 %
전화함 청유	25	17	24	21 %
전화음 알림	2	11	0	5 %
모른다	7	6	8	7 %

[표 1] 동작사용 인지도

[표 1]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독일인 및 동양계 외국인들에게 “Telefon handhaben”의 의미가 ‘전화함을 주제화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표 1]의 인지도는 전체 백분율을 가리킨다. 동양권 외국인들에게서는 전화음을 알리는 것의 의미로 “Telefon handhaben”이 인지되지 않는다. 이 사실에서 동작이 문화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작의 통사적 기술이 이미 제시된 네 가지 기호 의미와 어떤 비율로 사용되는가가 밝혀져야겠다. 결국 동작의 표현 변향이 어떤 의미 변향과 적절하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구 분	1 주먹을 귀 옆에 갔다 댄	2 엄지는 귀 옆, 새끼손가락은 입 옆에 댄	3 몸 앞에서 검지로써 원 돌림
A전화함 주제화	△	●	△
B전화함 약속	◇	◆	◇
C전화함 청유	◇	◆	◇
D전화음 알림	△	◆	◇

[표 2] 기호통사-의미 연결

[표 2]에서 세로 축은 의미 변형이며, 가로 축은 표현 변형이다. 또한 의미와 표현의 긴밀성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네 가지 기호를 사용하는데 ‘●’ 표시는 매우 적합함, ‘◆’는 적합함, ‘◇’는 보통이며, ‘△’는 별로 적절치 않은 연결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Telefon handhaben”의 가장 적합한 동작은 2번 기호통사 목록(엄지는 귀 옆, 새끼손가락은 입 옆에 댄)이며, 의미는 A번의 기호의미 목록(전화함 주제화)이다. 결국 ‘2A’가 화용론적으로 가장 높은 사용 영역의 빈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D열의 ‘전화음 알림’의 신체언어와 함께 “Klingeling”이라는 의성적 감탄사가 수반된다. 다음절에서는 DaF 수업시에 고려될 감탄사를 수반한 독일인 신체언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4. 감탄사를 수반한 신체언어 목록

이 절에서는 감탄사를 수반한 독일인 신체언어 목록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각 목록의 ‘가’항은 동작의 의미, 즉 기호 의미를 기술하였으며, ‘나’항은 동작의 표현면인 동작 통사론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항은 실제 동작이 행해지는 과정을 독일어로 기술하였다.⁵⁾

<A-계열>

Aah! 가. 안심함을 표현
나.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놓는 동작
다. Flache Hand auf die Brust legen

Aber pssst! 가. 침묵 요구
나. 입을 다무는 동작
다. Zeigefinger seitlich an den Mund legen

Achtung! 가. 출발신호를 알림
나.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동작

5) 이 감탄사 목록은 베를린공대 기호학 연구소 연구원 재직시 동작정보팀 채집한 자료임. 총 150여 항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DaF-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소개함.

다. Zeigefinger neben dem Kopf nach oben richten

Ä ä, M m. 가. 어떤 상황에 대한 부인
나. 머리와 손가락을 흔드는 동작
다. den Kopf hin und her drehen

Ähm! 가. 당혹함을 표현
나. 머리를 긁는 동작
다. Starrhand-Kopfkratzen

Au weia 가. 보지 않으려 함을 표현
나. 손으로 눈을 가리는 동작
다. Mit der gespreizten Hand das Gesicht abdecken

<B-계열>

Bah 가. 놀람을 표현
나. 입에 손을 놓는 동작
다. Iteriertes Hand waagerecht gegen den Mund legen

Bitte bitte! 가. 간청함에 대한 표현
나. 손을 벌리는 동작
다. Bitthändeschütteln

Bla bla bla 가. 수다스러움을 나타냄
나. 종알거리는 모습을 손으로 하는 동작
다. Nach vorn gerichtete Daumen-Finger-Klammer öffnen und schließen

Bravo! 가. 성과에 대한 감격을 표현
나. 손뼉 치는 동작
다. Händeklatschen

<D-계열>

Da! 가.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알림

나. 손을 벌리는 동작
다. Flache Hand vor den Körper halten

Dalli, dalli! 가. 서두름을 요구
나. 손목을 가리키는 동작
다. Handgelenk heben

Du Schreck! 가. 놀람을 표현
나. 손으로 뺨과 턱을 버티는 동작
다. Wange mit der Hand stützen

<E-계열>

Echt 가. 사실에 대한 확인 표현
나. 선서하는 모양으로 손을 올리는 동작
다. Zweifingerhand neben dem Kopf nach oben richten

Ehm, ehm! 가. 말하고 싶음을 알림
나.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동작
다. Zeigefinger neben dem Kopf nach oben richten

<F-계열>

Fuck 가. 상대방을 위협 혹은 놀리는 표현
나. 중지 손가락을 올림
다. Abgewinkelten Mittelfinger hochhalten

<G-계열>

Gähn gähn 가. 피로함을 나타냄
나. 손을 입에 놓는 동작
다. Iteriertes Hand waagerecht gegen den Mund legen

Gluck, gluck, gluck 가. 술 마심을 나타냄
나. 술 마시는 동작
다. Daumen-Finger-Klammer vor dem Mund

kippen

- Grübel,
grübel
- 가. 정신적 긴장을 표현
 - 나. 머리를 쥐어뜯는 동작
 - 다. Starrhand-Kopfkratzen

<H-계열>

- Hä?"
- 가. 좋지 않은 청력을 나타냄
 - 나. 귀 뒤에 손을 갖다 놓는 동작
 - 다. Mit dem Zeigefinger an das Ohr tippen

- Ham, Ham!
Happa happa!
- 가. 상대방에게 먹을 것을 권유
 - 나. 식사를 섭취하는 동작
 - 다. Bündelhand zum Mund führen

- He!, Hallo!
- 가. 주의 환기
 - 나.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동작
 - 다. Zeigefinger neben dem Kopf nach oben richten

<H-계열>

- Hi hi hi!
- 가. 즐거운 감정의 표현
 - 나.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동작
 - 다. Iterierte Hand waagerecht gegen den Mund legen

- Hoch!
- 가. 상대방이 일어나도록 요구
 - 나. 손을 펼쳐서 들어올리는 동작
 - 다. Flache Hand waagerecht heben

- Hurra!,
Jippi!,
Yeaah!
- 가. 승리 및 성공을 표현
 - 나. 손으로써 환호하는 행위
 - 다. Mit den Fäusten nach vorn Trommln

<I-계열>

- Iiih!
- 가. 나쁜 냄새에 대한 혐오심 표현

나. 코를 막는 동작
다. Naselflugel zusammenziehen

<J-계열>

Ja ja

가.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만족의 표현
나. 머리를 끄덕이는 동작
다. Kopfnicken

<K-계열>

Kch!

가. 살해위협을 나타냄
나. 목을 자르는 동작
다. Zeigefinger über den Hals streichen

Klingeling

가. 신호, 부름, 호출이 왔음을 나타냄
나. 전화관련 동작
다. Greiffaust Wackeln am Ohr

<L-계열>

Los!

가. 함께 하기를 요구함
나. 누구를 손짓으로 부르는 동작
다. Mit dem Zeigefinger winken

Los, Mann!

가. 용기 혹은 기운을 요구함
나. 주먹을 움켜쥐는 동작
다. Den Unterarm mit der geballten Faust nach vorn stossen

<M-계열>

Maaaaann!

가. 상대방의 부족한 생각을 질책함
나. 머리를 두드리는 행위
다. Stirnklaps

<N-계열>

Na!

가. 기억하려는 시도
나. 손가락을 튀겨 소리를 낸다.
다. Mit den Fingern schnipsen

- Na bravo!** 가. 감격 및 열광의 표현
나. 박수 동작
다. Handeklatschen
- Na da!** 가. 누군가에게 결심과 생각을 지시할 때
나. 손가락으로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
다. Zeigefinger in eine bestimmte Richtung richten
- Na los!** 가. 상대에게 긴박함을 요청
나. 손을 올리는 동작
다. Flache Hand waagrecht heben
- Na na na!** 가. 위험한 상황을 판단했을 때
나. 손을 흔드는 동작
다. Frontale Speizhand-Schaukel
- Naja.** 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표현
나. 눈앞에 손을 대는 것
다. Mit der gespreizten Hand das Gesicht abdecken
- Ne ne ne!** 가.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
나. 머리를 흔드는 동작
다. Den Kopf hin und her drehen
- Nix!** 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 손을 펼치는 동작
다. Flache Hand vor den Körper halten
- <O-계열>
O nee! 가. 원하지 않음을 표현
나.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
다. Mit der gespreizten Hand das Gesicht abdecken
- O Weh!** 가. 애통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

나. 손을 가슴에 대는 동작
다. Flache Hand auf die Brust legen

Oh nein! 가. 갑자기 죄의식을 표현
나. 손을 뺨에 대는 동작
다. Wange mit der Hand stützen

Oi joi joi! 가. 통쾌, 경의를 표현
나. 손을 허공에 흔드는 동작
다. Handschleuder

<P-계열>
Phu 가. 교만, 자만을 표현
나. 코끝을 치켜올리는 자세
다. Die Nasenspitze heben

Puh! 가. 안도를 표현할 때
나. 손을 이마에 대는 동작
다. Mit der Handfläche über die Stirn wischen

Pwww! 가. 땀흘림을 표현
나. 손을 이마에 대는 동작
다. Mit der Handfläche über die Stirn wischen

<R-계열>
Rrrrrr! 가. 불안을 나타낼 때
나. 손을 입으로 깨무는 동작
다. Fingerspitzen-Beissen

<S-계열>
Schluchz! 가. 우는 것을 표현
나. 손가락을 얼굴에 대는 동작
다. Mit dem Zeigefinger über den Backenknochen nach unten wischen

Schmatz! 가. 키스를 나타냄

나. 손을 키스하는 동작
 다. Die Fingerspizen der flachen Hand Kussen
 und eine Wurfbewegung machen

Schnarchen 가. 잠자는 것을 표현
 나.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
 다. Den Kopf seitlich gegen die flache Hand
 lehnen

Stop! 가. 승객에게 탑승을 요구
 나. 엄지를 펴서 흔드는 동작
 다. Daumen recht vom Korper am gsetreckten
 Arm aufrecht halten

<T-계열>
Tja! 가. 관심사에 대한 의혹을 표현
 나. 어깨를 들썩임
 다. Schultern hochzeihen

Tock tock! 가. 정신이 나감을 표현
 나. 손가락으로 이마를 치는 동작
 다. Mit dem gerundeten Zeigefinger an die Stirn
 tippen

Toll! 가. 감격 및 열광을 표현
 나. 박수를 치는 동작
 다. Handeklatschen

**Top!,
 Prima** 가. 좋은 결과임을 나타냄
 나. 엄지를 흔드는 동작
 다. Abgespreizten Daumen aufrecht halten

Tütitilitu! 가. 우둔함을 가리킬 때
 나. 손가락으로 이마를 치는 동작
 다. Mit dem gerundeten Zeigefinger an die Stirn
 tippen

<U-계열>

Uäks! 가. 구역질남을 표현
 나. 콧등을 오그라뜨리는 동작
 다. Naselfugel zusammenziehen

Ups! 가. 실언을 나타냄
 나. 입을 다무는 동작
 다. Zeigefinger seitlich an den Mund legen

<W-계열>

Weh mir! 가.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
 나. 손으로 눈앞을 가리는 동작
 다. Mit der gespreizten Hand das Gesicht abdecken

Whow! 가.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됨을 표현
 나. 엄지와 검지를 펼쳐 둥글게 만드는 동작
 다. Daumen-Zeigefinger-Ringhand in Schulterhöhe halten

<Z-계열>

Zoch! 가. 위협을 나타냄
 나. 주먹으로 위협하는 동작
 다. Die Faust mit dem Rücken zeigen

5.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DaF-수업시 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감탄사를 수반한 독일인 신체언어들을 기호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를 독일어 교수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4절에 제시한 감탄사를 수반한 손동작 목록은 DaF-수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종래의 텍스트 및 문법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독일에서의 생존을 위한 실용적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교강사는 위에 제시한 목록에 해당하는 동작을 직접 보여주거

나 상황을 부여 역할극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잇점은 DaF-교재 제작시, 여기에서 제시한 신체언어 목록에 해당되는 단원이 있을 경우 동작 기호들을 삽화로 처리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거나 비디오 및 CD롬 타이틀로써 멀티텍스트를 제작하여 학습자의 감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중분. 1998가. “프랑스에서 붙어 학습 중에 있는 두 명의 한국 여학생들의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들의 관찰 및 분석.” 1999 한국불어불문학회 여름 학술제 발표(1998.6, 전주대).
- 권중분. 1998나.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신체 언어 능력의 중요성 및 문화와 제스처의 관계.” 외국어교육연구 1, 서울대 외국어교육 연구회.
- 김영순. 1999가. “기호학,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경북대 통사 의미 연구회 초청 특강(1999.10.27, 경북대).
- 김영순. 1999나. “영상분석을 위한 기호통사론적 접근.” 1999년 생성문법학회·현대문법학회 합동학술발표회(1999.11.12, 대구대).
- 김영순. 1999다. “언어 기호로서의 인간 동작.” 언어과학연구 16, 언어과학회.
- 김영순. 1999라. “다중문화교육을 위한 동작분석 방안.” 이중언어학 16, 이중언어학회.
- 김영순. 2000가. “한국어 감탄구문의 통사 의미적 기술,” 한국어의미학회 제 6차 전국학술대회(2000.02.16, 숙명여대).
- 김영순. 2000나.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동작교수 방안.” 언어과학회 동계전국학술대회(2000.02.19, 경북대).
- 김영순. 2000다. “한국인 손동작의 의미와 화용.” 한국어의미학 6, 한국어의미학회.
- 김영순. 2000라. “인간 동작과 음성.” 경북대 음성실험실 초청특강(2000.05.18, 경북대).
- 김진우. 1994. 「언어와 의사소통」, 서울: 한신문화사.

- 성광수·김성도·김영순. 1998. “몸짓과 발화: 한국·독일 화자간의 비구두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화용론적 기본 원리.” 고려대-베를린공대 국제 공동 연구 자료집.
- 성광수. 1999. “이중언어교육과 비언어적 소통.” 이중언어학 16, 이중언어학회.
- 송한선. 1985. 비언어적 행위에 있어서 문화패턴 비교.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 이석주. 2000. “신체언어와 의사전달.” 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지룡·김영순. 1999가. “의미작용과 기호작용의 통합.” 현대문법연구 19, 현대문법학회.
- 임지룡·김영순. 1999나. “담화매체의 기호체계에 관하여.” 독일어문학 11, 독일어문학회.
- 임지룡·김영순. 2000. “신체언어와 언어표현의 의사소통적 상관성.” 언어과학 70, 한국어문학회.
- 정성호. 1985.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계자. 1998. “비언어적 요소인 한·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 분석.” 독일어문학 7, 독일어문학회.
- 추계자. 2000.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독일어 신체언어 기호, 독일어문학 11, 독일어문학회.
- Bouissac, P.(ed.) 1998. Encyclopedia of Semiotic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 Press.
- Bühler, K. 1933. Ausdruckstheorie, Stuttgart: Fischer.
- Bürger, B. & Parzinger, D. 1998. Körpersprache, Augsburg: Weltbild.
- Corraze, J. 1980. Les communications non verbales, Paris: PUF.
- Ekmann, P. & Friesen, W. V. 1972. Hand move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22, 353-374.
- Critchley, MD. 1975. Silent language, London: Butterworths.
- Ekmann, P. 1980. Three class of nonverbal behavior, Raffler-Engel, W.(ed.), Aspects of nonverbal communication, Liese: Swets & Zeitlinger, 89-102.

- Fries, N. 1988. Interjektionen, Interjektionsphrasen und Satzmodus, I. Rosengren(Hg.), Satz und Illokution 1, Tübingen: Niemeyer, 307-341.
- Kendon, A. 1986. Some reasons for studying gesture, *Semiotica* 62, 3-28.
- Knapp, M. L. 1978.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New York: Holt.
- Luccio, R. 1997 *Body behavior as multichannel semiosis*, Posner, R. et al.(eds.), *Semiotik*, Berlin & New York: de Gruyter, 345-356.
- Morris, Ch. 1977. *Pragmatische Semiotik und Handlungstheorie*. Transl. & ed. Eschbach, A. Frankfurt/Main: Suhrkamp.
- Nespoulous, J-L & Lecours, A. R. 1986. *Gestures: Nature and function*, Nespoulous, J-L et al.(eds.), *The biological foundation of gestures*, Hisdale: Erlbaum, 49-62.
- Nöth, W. 1990. *Handbook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Patterson, M. L. 1983. *Nonverbal behavior*. New York: Springer.
- Posner, R. 1993. Beliving, causing, intending, Jorna, R. J. et al.(eds.), *Signs, search, and communication*, Berlin & New York: de Gruyter, 215-270.
- Trabant, J. 1996. *Elemente der Semiotik*, Tübingen: Franke.
- Wolff, Ch. 1945. *A psychology of gesture*, New York: Amo.

Zusammenfassung

Das Verstehen der deutschen Körpersprache mit Interjektionen

Kim, Young-Soon(Chosun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die Auffassung motiviert, dass es sich bei der deutschen Körpersprache in semiotischer Hinsicht um

kommunikative Geste handelt. Die semio-syntaktischen, -semantischen und -pragmatischen Charakteristika dieser Geste wurden erörtert. Insbesondere die ermittelten syntaktischen und semantischen Eigenschaften der Körpersprache sprechen für die Auffassung, dass sie in semio-syntaktischer, -semantischer und -pragmatischer Hinsicht mit Interjektionen verknüpfen können.

Beispielsweise wurde eine deutsche Geste "Telefone handhaben" angeführt. Bei dieser Geste tritt eine deutsche vokalische Interjektion "Klingeling" auf. Diese Geste stellt drei Ausdrucksvariationen(1-3) und vier Bedeutungsvariationen(A-D) dar: 1) *Die Faust neben das Ohr halten*, 2) *Daumen neben das Ohr und Kleinfinger neben den Mund halten* und 3) *Mit dem Zeigefinger vor dem Körper frontal kreisen*; A) *Telefonieren thematisieren*, B) *Einen Telefonanruf auffordern*, C) *Zu einen Telefonanruf auffordern* und D) *Den Eingang eines Anrufs anzeigen*. Mit Hilfe der semiotischen Gestenanalyse könnten die deutschen Körpersprachen mit Interjektionen alphabetisch geordnet werden, und die Gestenliste soll für den DaF-Unterricht von Nutzen sein.